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성경적 미술치료의 선교적 적용: 중국 A지역 7-11세 아동을 중심으로

이현아

I. 서론

1. 서론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가족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불안 세대'의 탄생과 가족 기능의 역기능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인 중국은 국가적 정책과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2018년 시행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과 18세 이하 종교 교육 금지법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어린이 선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적 미술치료라는 창의적 도구를 통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선교 현장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타문화권인 중국 선교 현지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중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에 관한 성경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가족 내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이를 통해 선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타문화권 선교지의 부모 자녀 관계회복을 위한 성경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이를 통한 선교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연구문제는 중국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가족 구조에 관한 이해, 부모 자녀 관계와 상호 작용 증진에 관한 연구를 통한 성경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다.

II. 본론

1. 중국 부모 자녀 관계의 상황적 배경

1.1 종교적 및 사회적 배경

중국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이 공산주의 이념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계획을 통해 유물론 중심의 세계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적으로는 1980년부터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소황제'라 불리는 독자 세대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잉 보호와 자녀 중심적인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호구 문제와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고향의 조부모에게 맡기는 '격세교육'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1.2 문화적 배경과 가정 교육의 실태

중국 가정은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수직적 관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현대에 들어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양육 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입시 위주의 성적 지상주의와 학위 열풍은 자녀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부여하며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정 교육의 문제를 '국사(國事)'로 격상하고 '가정교육촉진법'을 시행하여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 부모 자녀 관계의 성경적 이해

2.1 성경적 부모와 자녀의 정의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를 출산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자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물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아야 한다.

2.2 상호작용의 성경적 원리

성경적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엡 6:4),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엡 6:1).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언약 공동체'의 핵심적 활동이다.

3. 부모 자녀 관계의 성경적 이해

3.1 부모와 자녀의 성경적 정의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선물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존재이다. 부모 자녀 관계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다.

3.2 성경적 상호작용의 원리

성경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한다. 이는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엡 4:15),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4. 성경적 미술치료의 이론적 토대

4.1 미술치료의 독특성

미술치료는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상징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는 자료의 영속성과 공간성을 지니며, 창조적 작업을 통해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선교 현지인이나 감정 표현이 서툰 아동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4.2 성경적 상담과 미술치료의 통합

성경적 미술치료는 세속적 심리학이 아닌 성경적 신관과 인간관에 기초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예술가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술 활동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창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목표는 단순한 자아 강화를 넘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세속 미술치료와의 차별점은 일반 미술치료가 내담자 중심의 자아 실현을 꾀한다면, 성경적 미술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담자의 영성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

4.3 성경적 미술치료의 정의와 목적

성경적 미술치료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창조성에 기초한다. 인간은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창조적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미술 활동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이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경적 미술치료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미술이라는 창조 과정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아 강화를 넘어 영

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4.4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부모 자녀 관계 미술치료(PCDAT) 기법을 성경적으로 승화시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창조적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의 전인적인 영혼 돌봄을 실천하게 된다. 미술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자녀는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III. 연구실행

<프로그램 커리큘럼 요약> (1-10회기)

회 기	프로그램명	주요 활동 내용	기대 효과
1-2	자화상/동물가족화	자신과 가족을 동물 이미지로 비유	가족 내 역할 및 정서적 거리감 파악
3	핑거페인팅	물감을 이용한 자유로운 촉각 놀이	무의식적 자기 개방 및 감정 해방
4	빗속의 사람	빗속에 처한 사람의 모습 그리기	스트레스 대처 능력 및 자아 개념 진단
5	야곱 이야기 협동화	창세기 27장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 그리기	가족 내 편애 및 갈등 구조 인식과 정화
6	손 본뜨기	부모-자녀의 손을 본뜨고 대화 기록	세대 간 언어 패턴 및 애착 관계 객관화
7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공동 작업	의견 조율 및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 강화
8	소원의 나무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열매로 표현	부모-자녀 간 지지와 영적 비전 공유
9	가족 이미지 선	상대방을 위한 이미지 작품 제작	가족 간 애착 증진 및 가치 재발

	물	및 증정	견
10	천국 이미지 만 들기	입체 매체로 상상 속의 천국 구현	영적 소망 공유 및 관계의 완성 경험

IV. 연구결과

1. 도입 단계: 마음 열기와 관계 탐색 (1-3회기)

- 1회기 (자화상/자유화): 참여자들은 오랜만의 그림 활동에 행복감을 표했다. 가정 B의 자녀는 구름 많은 시원한 날씨를 그리며 자신의 평안한 내면을 투사했다.
- 2회기 (동물가족화): 가정 A의 어머니는 자신을 고양이, 남편을 소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신앙적 고백을 담았다. 가정 E의 아들은 형을 울트라맨으로 그리며 형제간의 역동을 드러냈다.
- 3회기 (핑거페인팅): 가장 큰 정서적 분출이 일어난 회기이다. 가정 E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진흙 놀이를 하던 추억을 회상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가정 B의 어머니는 "아이와 처음으로 제대로 놀아준 시간"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발견했다.

2. 실행 단계: 내면 직면 및 성경적 적용 (4-8회기)

- 4회기 (빛속의 사람):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파악했다. 가정 A-1은 폭우와 웅덩이를 그려 학업 스트레스를 드러낸 반면, 가정 B는 우비와 장화를 신고 교회로 향하는 가족을 그려 신앙적 대처를 보여주었다.
- 5회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 협동화를 통해 가족 내 편애와 소통 문제를 객관화했다. 가정 D의 어머니는 야곱의 입장에 몰입하여 가족 간 정직한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6회기 (손 본뜨기):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과 듣고 싶은 말을 대조했다. 가정 B-2의 아들은 엄마가 자주 때린다는 사실을 '때리는 손' 그림으로 고발하여 엄마에게 충격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 7회기 (가나 혼인잔치 공동화): 성경 이야기를 시각화했다. 가정 E의 아들은 잔치에 중국 국기를 그리고 싶어 했고, 엄마는 아이의 설명을 들은 후 "아이에게도 나라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며 의견을 수용했다.

3. 종결 단계: 소망과 천국 비전 (9-10회기)

- 9회기 (가족 이미지 선물): 서로를 향한 축복을 담았다. 가정 A의 어머니는 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글귀와 십자가 연을 선물했다. 가정 E의 어머니는 힘들었던 양육의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으며 눈물을 보였다.
- 10회기 (천국 이미지 만들기): 클레이와 모래로 천국을 형상화했다. 비신자였던 가정 D의 모녀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복음에 마음을 열었다.

V. 연구 결과 분석

1. 주요 사례 및 질적 변화 분석 (축어록 포함)

1) 핑거페인팅 (3회기): 방어 해제와 카타르시스

손바닥과 손가락을 사용해 물감을 문지르는 활동에서 비신자 어머니들의 깊은 내면 고백이 터져 나왔다.

- 어머니 E의 회상: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랄 때 진흙 만지던 기억이 나요. 두 오빠와 진흙을 문히며 싸우다가 온몸이 엉망이 되어 아빠한테 씻겨달라고 하던 그 시절... 요즘 아이들은 집이 더러워질까 봐 이런 놀이 꿈도 못 꾸는데, 오늘은 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는 미술이 과거의 결핍을 위로하고 방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임을 입증한다.

2) 가나 혼인잔치 공동 작업 (7회기): 상호작용의 질적 전환

성경 이야기를 시각화하며 부모와 자녀는 권위적 관계에서 동역적 관계로 변화했다.

- 가정 A: 11세 딸이 성경을 연구하며 항아리 위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어머니는 "딸의 사고력이 나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물러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재발견했다.
- 가정 B (축어록): 자녀가 항아리를 붉은색으로 칠하자 엄마가 의아해했다. 자녀는 "**엄마는 진짜 항아리를 본 적이 있어요?"**라고 물었고, 엄마는 웃으며 "**엄마가 어릴 때 보던 항아리는 말이야..."**라며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3) 소원의 나무 (8회기): 가치관의 복음적 재편

- 비신자 가정 D: 어머니는 열매에 '대학 진학', '성공'을 적으며 "**우리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돌아가는 바퀴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 D-1이 "**의사가 되어 엄마의 건강을 고쳐주고 싶다**"고 쓴 열매를 보며, 자녀가 성취의 도구가 아닌 사

량의 주체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 비신자 가정 E: 아들 E-1이 ***20년 후에 페라리를 사서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모시고 가겠다***고 발표하자, 어머니는 ***임신과 양육의 고생이 다 보상 받는 기분이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선물임을 다시 느꼈다***며 감동을 전했다.

4) 천국 이미지 만들기 (10회기): 영적 소망의 확립

비신자 가정 D와 E는 '천국'이라는 낯선 개념을 미술로 시각화하며 복음적 가치를 수용했다.

- 어머니 D: "천국은 걱정이 없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동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설명에 가슴이 벅찼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생활이 거기 있는 것 같다."
- 자녀 E-1: 팬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영상을 찾아주며 주도성을 존중했다.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라는 아이의 고백은 유물론적 교육을 넘어선 영적 상상력의 회복을 보여준다.

2. 연구 결과 분석 (5가지 핵심 변화)

1.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 지시하고 통제하던 부모들이 미술을 통해 자녀의 고유한 생각을 '관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자녀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작품의 의도를 묻는 방식으로 대화 패턴이 개선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지시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2. 정서적 안정성 증진: 부모와 공동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맛본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술이라는 안전한 장 속에서 억압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부모-자녀 간 신뢰가 강화되었다.
3. 신앙적 성장: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음에도 미술이라는 매체의 매력 덕분에 성경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성경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거부감 없이 복음적 가치관(순종, 축복, 천국 소망)이 심어졌다.
4. 사회적 기술 향상: 공동 작업을 통해 협력과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였다.
5. 부모 역할의 인식 변화: 통제적이고 지시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아이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VI. 결론 및 선교적 제언

1. 성경적 미술치료의 선교적 효과

중국과 같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미술치료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 1.1 합법적 접근성: 종교 교육이 엄격히 금지된 환경에서 심리 상담 및 교육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신자 가정에 침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 1.2 비언어적 복음 전달: 구체적인 교리 주입 이전에 그림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과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한다.
- 1.3 가정 교회의 기초 마련: 부모를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교회 건물이 폐쇄되더라도 각 가정 안에서 유기적인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모델을 제시한다.

2. 중국 선교에의 적용 가능성

본 연구를 통해 성경적 미술치료가 중국과 같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선교적 효용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 2.1 가족 중심의 접근: 자녀 교육에 민감한 중국 부모들에게 미술 교육이라는 매체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 2.2 문화적 적합성: 입시 교육에서 소외된 정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문화와 성경 이야기를 접목하기 용이하다.
- 2.3 비언어적 복음 제시: 직접적인 설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타문화권 선교지에 성경적 미술치료를 적용한 최초의 시도로서, 비언어적 선교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향후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세분화된 커리큘럼 보강이 요구된다.

4. 제언 및 향후 과제

성경적 미술치료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신앙 양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가족 전체의 역동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미술치료는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치유 도구이자, 닫힌 선교지의 문을 여는 지혜로운 선교 전략이다. 본 연구는 선교 현지에서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